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해고 5년, 이제는 정말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이환태, 최병률, 한근우는 작년 9월부터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태, 최병률은 2013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노조인정투쟁 과정에서 해고되었고, 한근우는 작년 3월 해고되었습니다. 한근우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했지만 사측은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고자들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해고자 두 명이 집행부 활동을 하기도 했고, 단기간에 조합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해고자들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현장 안팎에 해고자들의 존재가 좀 더 부각되었고, 또 여러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 지원대책 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전선을 더 넓히고 끈질기게 싸운다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막농성장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16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기대의원대회 안건4호로 <해고자 투쟁 평가와 투쟁계획(안) 승인>건이 상정되었는데, 작년 9-1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의견일치안 가결 때까지 농성을 한다”를 승인한 것이므로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건 자체가 폐기되었고 투쟁계획은 다루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농성기한을 정하는 결정이 있었지만 해고자들은 지도부에게 천막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 복직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을 때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한근우 즉각 복직, 나머지 두 해고자는 복직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 정도라도 합의해야 농성을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자들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회장 역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지회장, 수석부지회장과 의 간담회에서 해고자들은 다시 한 번 천막농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했고, 지도부 동지들은 “해고자 천막농성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과정과 해고자들의 절박한 사정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임시대대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신은 공식회의체계에 의해 숨 막혀 죽었습니다.

천막농성은 최소한의 거점이자 발판입니다

천막농성 중단 결정을 제고해 주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을 만날 수 있었고, 하루 두 세 차례 선전전을 하면서 해고자 복직과 임단협 승리를 외쳤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이었지만 희망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복직투쟁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막농성을 접으라는 것은 복직투쟁의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과 연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거점이자 발판인 천막농성을 계속 하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5년을 힘들게 버텼습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해고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해고자 생계비 지급중단 결정 철회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해고자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지난 3월 16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10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현장발의로 지회 신분보장기금세척 개정 및 후속조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요지는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해고자 2인은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2개월만 추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해고된 지 5년이 되어가는 이환태, 최병률은 두 달 후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월 200만원의 생계비로 가정을 꾸려가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해고자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조합원 동지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자들은 누구를 믿고 싸워야 합니까?

해고자를 품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 정신입니다!

해고자 생계비 지급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현장발의한 대의원은 물론 집행부도 사전에 해고자와 단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지회신분보장기금은 해고자들에게는 한 가정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의조차 없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만일 노동조합의 살림이 어렵다면 해고자들도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정기대대 자료집 어디에도 해고자 신분보장기금 지급에 기한을 두어야 하는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회 신분보장기금은 충분한데 굳이 재정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마저 해고자를 버린다면 앞으로 그 누가 자본에 맞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조라면 해고자 복직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정부에 의해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내몰리고도 싸우고 있는 전교조 동지들이 민주노조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복직은 어렵더라도 해고자들이 싸울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주는 게 민주노조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하청노동자의 생존권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해고자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결사투쟁 하겠습니다.

해고자 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